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 지수 128p, 중고선가 지수 94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8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94p(-, WoW)를 기록함. 지난 주 현대중공업이 유럽 소재의 익명의 선주사로부터 수에즈막스탱커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함. 척 당 선가는 6,100만달러이며 납기는 2021년, 2022년 예정으로 알려짐. (Clarksons)

### 의지할 곳 없는 중국의 중소조선사들

COVID-19 팬데믹으로 중국의 민영 중소 조선사들이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됨. 이들은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보도됨.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4대 설비 과잉 산업 중의 하나로 지목했으며 그 결과 모든 은행들이 건조 자 금융자를 꺼려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5년 후 LNG 공급 부족 예상

현재 LNG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지만, LNG가격 폭락으로 전세계 LNG 플랜트 공사 스케줄들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5년 후 LNG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3월 이후 LNG생산업체들은 당초 계획했던 투자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생산량 기준 연간 7,400만톤, 투자금액 기준 70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PC시장 Super Cycle 기대

석유제품운반선(PC)은 현재 높은 운임 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간 높은 수준의 운임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브로커들은 앞으로 6주 동안 정유운반선 저장 수요가 아프리카 크기의 PC선 기준으로 30~114척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현대일렉트릭, 사우디서 350억원 초고압 전력기기 수주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사우디전력청(SEC) 230억원, 아람코(Aramco) 120억원 등 총 35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현대일렉트릭은 올해들어 사우디에서 600억원 이상을 수주했고, 아람코 수주잔고는 4월말 기준으로 약 9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 실적 선방에 원유운반선 수주 기대...'반등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

국내 조선업체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선박 수주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실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됨. 우호적인 환율과 후판 가격에 더해 2018년부터 늘려온 수주 잔액이 버팀목이 돼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됨. (한국경제)